삼공본풀이

옛날은 옛적에 웃상실[1]은 간이영성이 살고, 알상실[2]은 홍문수천이 살앗인디, 웃상실에서는 막 숭년(凶年)들언. 막 숭년드난 소문에 듣기를, 알상실에 막 풍년 들엇덴 소문이 나고, 또 알상실에서는 웃상실에 풍년이 들엇덴 소문이 난거라. 서로서로 소문이 잘못 뒈언.

게난 둘이가 다 얻어먹는 게와시(乞人) 덜인디, 웃상실에선 간이영성이 알상실더레 얻어먹으레 내려살 때고, 알상실에선 홍문수천이 웃상실데레 얻어먹으레 올라사는 도중에 질레서[3] 둘이가 만난 거라.

"어드레 가는 아주망이꽈?"

허난에.

"난 알상실 사는 홍문수천인디 웃상실에양 막 풍년 들엇젠 허난, 우리 세곈 막 ᄀᆞ물안 숭년(凶年) 지어부난 얻어먹으레 갔우다."

허난.

"게난 아주방은 어디레 갔수꽈?"

허난.

"난 웃상실에 간이영성인디, 우리 웃상실에 막 숭년들언 소문에 들으난, 알상실에 막 풍년 들엇젠 허연 그디 얻어먹으레 갔우다."

허난. 아, 서로가 질레에서 통성명 허멍 어떵어떵 허단 보난

"경 말앙 옵서. 우리 둘이가 부베간이나 삼앙 삽주."

겐 둘이가 이제 부부가 뒌 거아니. 경 부부가 뒈연 사는 게, ᄆᆞᆯ고랑[4]에서 산거라. ᄆᆞᆯ고랑에서 사는디, 애긴 베언 낳는 거 보난, ᄯᆞᆯ이 난거라. 겐, 이름이나 지와보저 허연. 은장아기로 이름을 지우고, 이젠 또 살단살단 보난. 또 애길 베언. 나난, ᄯᅳ시 ᄯᆞᆯ 난거라. 게난 놋장아기로 이름을 지우고, 겐디 큰ᄯᆞᆯ 난 때 ᄀᆞ지는 ᄆᆞᆯ고랑에서 살단, ᄒᆞ꼼 베지그랑허연[5] 이젠 비주리초막 헹 간 살단, 놋장아긴 나난 ᄒᆞ끔 더 이젠, 눈이 베지그랑헌 거라. 경 헨 이젠 이칸 집이허연 살단. 또 임신뒈연 낳는 건 보난, ᄯᅳ시 ᄯᆞᆯ 난 거 아니. 게난 이걸랑 가믄장아기로 이름을 지으겐 허연. 아, 가믄장아기가 난 살아가는 게, 그냥 삽시간에 경 부제(富者)가 뒈어부는 거라. 게난,

---

1) 웃상실: 가믄장아기 신의 부신명(父神名). 또는 그 출생지.
2) 알상실: 가믄장아기 신의 모신명(母神名). 또는 그 출생지.
3) 질레서: 길에서.
4) ᄆᆞᆯ고랑: 마굿간.
5) 베지그랑허연: '베지근ᄒᆞ다'는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깊은 맛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다는 의미임.

막 천개의 집도 헤연에 소실 대문 ᄃᆞᆯ안 살고, 남전북답(南田北畓) 너른 밧덜토 나고 부제(富者)가 뒈언. 막 살아가난 이 애기덜토 아멩헤도[6] 일고 으ᄃᆞᆸ 설에 으남은 설 뒛인ᄀᆞ라. ᄒᆞ루는 심심허고 야심허난 이젠 ᄯᆞᆯ을 불른거주게. 큰ᄯᆞᆯ을 불런,

"은장아기야."

허난.

"예."

허난에.

"이레 와보라."

허난. 이젠 아바지 방에 들어가난 어멍허고 앚아둠서로

"야, 넌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헹공발신(行動發身) 헤서 사느냐?"

허난.

"예. 아바지도 덕, 어머님도 덕,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에 살앐우다."

허난

"하 첨, 나 ᄯᆞᆯ애기 적실허다[7]. 느 방으로 가라."

허연 보내고. 이젠

"놋장아기야."

허난

"예."

허난

"이레 오라보라."

허난.

"넌, 누게 덕에 살암느냐?"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 아바님도 덕, 어머님도 덕에 살앐우다. 먹고, 입고, 헹공발신(行動發身) 헶우다."

허난

"어 첨, 나 ᄯᆞᆯ아기 착실허다. 느 방으로 가라."

허고. 가믄장아기 불런에

"넌, 누게 덕에 먹고, 입고, 헹공발신(行動發身) 허느냐?"

허난

---

6) 아멩헤도: 아무래도

7) 적실하다: 확실하고 분명하다.

“하느님도 덕, 지하님도 덕, 아바지 어머님도 덕이우다만은. 나 베또롱[8] 아래 선그뭇이 덕이우다.”

허난.

“아, 요년, 생긴 년, 너 베또롱 아래 뭐 선그뭇이 덕이고.”

허멍 ᄯᅳ리젠[9] 헤가난. 베낏디레[10] ᄃᆞᆯ아나분거라. 통설대로[11] ᄯᅳ리젠 허난 ᄃᆞᆯ아나부난. 이젠 아바지영 어머니영,

“야, 은장아기야, 저디 강 느네 아시 강 ᄃᆞᆯ앙오라.”

허난. 올레에 간 ᄆᆞᆯ팡 우이 올라사멍 ᄀᆞᆫ는 말이

“가믄장아기야, ᄒᆞᆫ저 저레 ᄃᆞᆯ아나불라. 아바지 통설대 들르고, 어머님 부짓뎅이 들런 느 두들젠 왔저.”

허멍 허난. 겐 그 말 ᄀᆞᆯ아뒁 알더레 탕 내려사난 아, 청주넹이[12]가 뒈분거라. 청주넹이로 변장 헤불언.

이젠 놋장아기ᄀᆞ라

“야, 어떵허난 느네 성도, 느네 아시 ᄃᆞᆯ레가당 안 왔이니? 간 보라. 강 ᄃᆞᆯ아오라.” 허난. 이젠 간. 걸름 우터레[13] 올라사멍

“야, 가믄장아기야 ᄒᆞᆫ저 ᄃᆞᆯ아나불라,아버지영 어머니영 느 ᄯᅳ리레 오랐저.”

헤뒨. 탁 ᄂᆞ려사젠 헌 게 용달버섯[14]이 뒈분거라. 게난, 어멍 아방은 ᄯᆞᆯ 삼형제가 나간 아무도 안 돌아오는 거 아니

“아이고, 이거 피라곡절(必有曲折) 헌 일이옌.”

이젠 아방은 베낏디레 나가젠 헌게 저 대문에, 문대방[15]에 눈, 강 탁 쳐부난에 아야야야 허단보난 오꼿 눈이 어둑어불고, 어멍은 정지에서, 정지로 나가젠 헌게. 정짓문에 문대방에 강 그냥 앗앙, 눈, 간 쳐부난 아야야야 둥글단보난. 정신 출령 하르방, 하르방, 할망, 할망 춧안 보난, 둘이가 다 오꼿 눈이 어둑어[16] 분거라 그냥. 게난 짐작삼아 손으로 영영영영 헤연. 이젠. 하르방, 할망, 할망 춧안. 경 허연 헌디. 가믄장아긴 그 질로 나산 집인 돌아올 순 엇고, 가노렌 허난.

---

8) 베또롱: 배꼽.
9) ᄯᅳ리젠: 때리려고.
10) 베낏디레: 바깥으로.
11) 통설대로: 긴 담뱃대.
12) 청주넹이: 청지내.
13) 걸름 우터레: 거름 위에.
14) 용달버섯: 음달버섯. 말똥버섯.
15) 문대방: 문지방.
16) 어둑어: 어두워.

큰 마퉁이가 마 파는디가 잇어. 마 파는디 둥굴랑 둥굴랑 허멍 마 팖이난,

“아이고, 말이나 ᄒᆞ꼼 물으쿠다예. 어디가민 인간처가 잇인고예?”

“에이그, 여잔 꿈에만 시꾸와도[17] 새물(邪物)인디 예펜년이 말 시겨부난, 오꼿 나, 마 뿔리 끊어져 불어라.”

허멍 막 욕을 헤 분거라.

이젠 또 가당가당 보난, 셋 마퉁이가 둥굴랑 둥굴랑 마 팖이난

“말이나 ᄒᆞ쏠 물으쿠다.”

허난에

“아이고, 여편년이 말 시겨부난 오꼿, 마 데가리 끊어져 불어렌.”

막 욕을 허여.

또 가단보난 또 족은 마퉁이가 마 파는디 잇이난에

“아이고, 말이나 ᄒᆞ꼼 물으쿠다예?”

허난. 족은 마퉁이는

“예. 골읍서.”

허난

“어디가민 인간처가 잇인고양?”

허난

“요 제 넘고, 저 제 넘고 강 보민양. 비주리초막[18]에양 노인네 할마님 혼자 잇인디 잇우다. 그디 강 오늘밤이 가근엥에 주인이나 맺엉 갑서.”

경 골아주는 거라. 경 헨 이젠

“아이고, 고맙수다게.”

헤 뒨. 가노렌 허난, 춤 요 재 넘고 저 재 넘고 강 보난에 잇어, 집이. 집 잇이난 그때엔 할망신디 간

“나 주인이나 ᄒᆞ꼼 맺젠 헶수다.”

허난.

“아이고, 이제 우리 마퉁이들 들어오민 우리 마퉁이들 누울 방도 엇인디다가 나그네ᄁᆞ지 줄 방이 엇젠.”

허난.

“나, 정지 구석에라도 좋수다.”

경 헨. 아이, 어둑어가난 둥굴랑 둥굴랑 허멍 거 무슨 소리가 나는 거

17) 시꾸와도: 비추어도.
18) 비주리초막: 매우 작은 초막.

라. 겐

“이거 무슨 소리꽈?”

허난 우리 큰 마퉁이 마 팡 오는 소리옌. ᄒᆞ꼼 잇이난 또 둥굴랑 둥굴랑 소리 나난

“이건 무슨 소리꽈?”

허난 이건 셋 마퉁이 마 팡 오는 소리옌. ᄌᆞᆨ은 마퉁이 마 팡 오는 소리가 둥굴랑 둥굴랑 허연. 마퉁이들이 집이 완, 마 팡 온 거 씻언. 솖안 앗아 온 건 보난. 큰마퉁인 데가린 어멍을 안네고, 꼴랑진 손님을 안네고, 복판은 이녁이 먹고. 셋 마퉁인 데가린 어멍을 안네고, 꼴렝인 손님을 주고, 복판은 이녁이 먹고. 족은 마퉁인 출령 온건 보난, 데가린 이녁이 먹고, 꼴렝인 어멍 안네고, 복판은 손님을 안넨 거라. 그걸 얻어 먹언.

“에이구, 나도 무시거 대접을 헤사주긴.”

헤연. 가믄장아기도 히양삭삭 ᄀᆞ은 쏠 봔 곤밥[19]허연. 큰 마퉁이한티 들어나상 허난. 욕만 후려[20]허는거라.

“어디 버렝이밥 헤단 우리 조상 전이도 안 먹어난 거 가졍 들어왓덴.”

막 욕허연 앗앙 나가렌. 셋 마퉁이한티도 앗앙가난 그냥 손더레 영 거려놔 가난

“아이, 아이 나 말덴. 버렝이밥 치우렌.”

허연 안 먹으켄 허고. 이젠 ᄌᆞᆨ은 마퉁이한티 앗아가난 족은 마퉁인,

“아이고, 영 맛 존 밥이 어디 시녠.”

허멍 그냥 손으로영 숟가락으로영 막 먹어가난. 이젠 큰 마퉁이, 셋 마퉁인 그땐 간, ᄀᆞ만히 산 바리단

“나도, ᄒᆞ꼼 ᄃᆞ라. 나도 ᄒᆞ꼼 줘 보라. 줘 보라.”

허멍. 하도 족은 아시 맛좋게 먹어가난 먹구정 허연. 경 헌디. 이젠 그거 다 치와 둰. 줌은 자젠 허난 큰 마퉁이 방에 가난, 막 욕을 허는 거라

“여펜이 누게 발에 눕젠 헶이녠.”

막 허연. 이젠 셋 마퉁이 신디도 가도 막 욕허연. 족은 마퉁이 신딘 가난

“족은 마퉁이가 저 나 발더레라도 눕서.”

경 허연. 발에 누원 허는 게, 이제 가믄장애기 하고 부베간이 뒀어. 경 부베간이 뒈난, 뒷날 아침인 큰 마퉁이 마 파난디 둘이가 간 보난. 개똥,

19) 곤밥: 쌀밥.
20) 후려: 마구.

쉐똥만 문딱 이디 저디 데작데작 허고. 셋 마퉁이 마 파난디나 강 보주긴 허연 간 보난. 돌멩이만 왕그랑 헌 거아니. 족은 마퉁이 마 파난 디나 강 보주긴 허영 간 보난, 파민 금이여, 파민 은이여 그냥 금과 은이 보화가 막 나온 거라. 경 헨 그냥 삽시간에 큰 집도 나고, 큰 밧도 나고, 부제가 뒌 거라. 게난 가믄장애기가 ᄀᆞ만히 생각허난

"설운 낭군님아, 우리 아바지 어머니 어떵사 살앐인디, 어떵사 뒛인디 ᄒᆞᆫ번 춪아 보는게 어떵 허우꽈?"

허난.

"게믄 경 허렌."

허연.

"게믄 걸인 잔치나 헤 보게마씸."

허연. 이제 걸인 잔치를 허는디, 이제 츰 각처 도에 잇인 거지덜은 다 오는 거주게. 맹인 들이영. 경 허영 다 오는디. 메날 아버지가 오랎인가, 어머니가 오랎인가. 두일레 열나흘 걸인 잔치 허는디, 암만 기다려도 아니와. 말제 끝 마무렵[21] 뒈가난, 손덜 심엉 둘이가 봉사 뒈연 막뎅이[22] 끗고 짚으고 허연 오는 거 보난, 분명히 아바지 어머니라. 경 허난. 그디 간 앚으난에 제일 말쩨ᄁᆞ지[23] 어떵 못가게 허젠 허난. 우이로 멕여가단[24] 딱, 그 어멍, 아방 앚은 디 가민 끊엉, 멕여불지 말고, 또 알로 멕여가단 어멍 아방 신디 가걸랑 딱 끊엉, 멕여불지 말렌 허연. 시긴 거라. 게난 우이로 멕여오단 끊어불고, 이제 우티나 강 앚으민 주카부덴, 알로 멕여 오단 그디 가민 끊어불고 허난. 원, 일로 강 앚아도, 절로 강 앚아도. 숟가락 소리, 돌고락 돌고락 숟가락 소린 나고. 밥은 못 먹고 경 허단 마지막 두일레 열아흘이 끊나난. 이젠 그디 그 부하들ᄀᆞ라 ᄀᆞᆯ은 거주게

"저 디 앚은 할망, 하르방이랑 못 가게 심엉 가지 못허게 허연 놔두렌."

경 허여 뒨.

"헤치자."

허난에. 전국적으로 게와시(乞人)들이 문딱 가게 된 거 아니. 다 가불어 가가난 이제 아방 어멍은 막 손 삭삭 부비멍

"아이고, 죽을 쥐를 지엇우다. 우리 살려 줍서. 우리 쥐엔 헌 건 아무

21) 끝마무렵: 맨 마지막 끝 무렵
22) 막뎅이: 막대기.
23) 말쩨ᄁᆞ지: 맨 마지막까지
24) 멕여가단: 먹여가다가.

줴도 엇우덴.”

막 헤 가난.

“게난 어디서 옵디겐?”

허난.

“아이고, 난 웃상실 강이영성이고, 각신 알상실 홍문수천이우덴.”

허난

“게건 옛말이나 ᄀᆞᆯ아봅서. 들은 말이나 ᄀᆞᆯ아봅서.”

“아이고, 우린 옛말도 엇고, 들은 말도 엇수다.”

허난.

“게건 살아 온 말이라도 ᄀᆞᆯ아봅서.”

경 허난. 이때부떠 아방 어멍이 거지에서부떠, 만낭 ᄆᆞᆯ고랑에서 애길 나고 헌 말로부터, 쭉 놀레[25]로 불러 왕 이제 가믄장아기 집 나가분제ᄁᆞ지. 그ᄁᆞ지벢이 몰르주게. 게 그ᄁᆞ지만 불르민. 이젠 가믄장아기도 나도 노래 불르쿠덴 허연. 이젠 그 집이서 나완 마퉁이들 만낭 헤난 말로부떠 허영. 이 잔치허는, 걸인 잔치허는디 ᄁᆞ지 허영 ᄀᆞᆯ아. 경 허영 허민, 이제

“나 술 ᄒᆞᆫ 잔 받으시오.

허민. 술, ᄯᆞᆯ 가믄장아기가 술 들렁은엥에 잔더레 비왕 헤 가민, 잔이 다락 털어져부난 눈이 번뜩허게 떠져분거라. 어멍, 아방이. 눈이 번뜩허게 뜨난, 어멍 아방이 입어난 옷 싹 벳견. 이젠 그거 들렁 청ᄉᆞ록(靑邪氣)[26]도 내놀리자[27], 흑ᄉᆞ록(黑邪氣)도 내놀리자. 나무광대 정자ᄉᆞ록 내놀리자 허영. ᄉᆞ록들 거느리멍 다 놀려불고 경 헤둰. 이제 어멍 아방 입어난 옷 허영 헤뒁 그 옷은 불 케와[28] 불고, 새입성(新衣服) 허영 어멍 입정은엥에 허는 거. 이거 원칙으론 두 번, 그 노래 부를 때에 처음부터 허연 부르고, 반에서부떠 끝까지, 또 이건 가믄장아기 불르곡 허면 본풀이가 뒈는 겁니다.

---

25) 놀레: 노래.
26) ᄉᆞ록: 되어가는 일을 그르치게 하는 사기(邪氣).
27) 내놀리자: 내쫓자.
28) 불 케와: 불 태워.